

민주당 대표 후보들 호남 표심잡기

출마 선언 뒤 앞다퉀 광주로
송영길 “정권 재창출 광주서 시작”
홍영표 “호남 정신으로 재무장”
우원식 “광주의 선택 언제나 특별”

더불어민주당 자기 당권 후보들의 호남 구애가 시작됐다. 당권 후보들은 4·7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당 변화와 쇄신, 민생 등을 내걸고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15일 출사표를 던지고 일제히 첫 일정으로 민주당의 텃밭이자, 여권의 심장인 광주를 찾아 호남 구애 경쟁을 펼쳤다.

5선의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뒤 광주로 내려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송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하며 때론 회초를 들었다”면서 “저부터 반성하고 바꾸겠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변화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라는 이름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면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우리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광주를 찾아 “오월 정신을 계승해 민생을 수호하고 제4기 민주 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민심을 얻는 민주당의 변화, 정권 재창출의 길, 광주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공식 출마 선언을 한 4선의 홍영표 의원은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선언”을 했다. 홍 의원은 “민생과 개혁과제를 유능하게 풀지 못해 민주당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준 호남민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한 뒤 “깊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민주화의 성지, 더불어민주당의 심장 광주에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짐한다”며 “호남이 일관되게 지켜온 ‘담대한 진보’는 지금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정신이자 자세라고 생각한다. 호남 정신으로 재무장을 훌륭히 하고 일어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왼쪽부터),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15일 오후 광주 북구 온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연합뉴스

다. 이어 “우리 정치사의 중요한 고비에는 꼭 광주 호남이 있었다. 광주와 호남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진로가 바뀌었다.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의 길에 빛이 되어 달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제4기 민주당 정부의 출범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출마 선언을 한 뒤 오후에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 5·18 묘지를 참배했다. 4선인 우 의원은 “민생”을 강조하며 정권 재창출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광주의 선택은 언제나 특별했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번의 민주 정부가 호남의 결실과 함께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통해 촛불 정부를 세우고 180석을 몰아주신 것도 호남의 역할이 컸다”면서 “그런데 1년도 안 돼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면서 성찰과 혁신을 다짐했다. 이어 “혁신과 단결은 정권 재창출의 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민생이 방안이고, 현장에 답에 있는 만큼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

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드시 민주당을 혁신해 정권 재창출의 길을 열겠다”면서 “민주주의 역사에 불굴의 용기와 의지를 새겨넣은 광주 정신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형 일자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한 목소리를 내며 호남 민심에 구애했다.

이날 후보 등록과 함께 당권 레이스가 막이 오르면서 당권 주자들의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에 다수의 당원이 몰려있는데다, 호남 표심이 수도권 표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당권 주자들의 호남 구애는 정당대회 당일까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엔 선출되는 당 대표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만큼 당권 주자들 중 심오한 입지자들의 세력 결집과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난방공사 승소...나주 SRF 가동 되나

광주지법 행정1부 “나주시 행정처분 공익상 필요성 인정 안 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들어선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와 관련, 법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향후 발전소 운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법원은 특히 ‘환경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들어 거부한 나주시의 행정 처분과 관련,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현)는 15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사업개시 신고를 했지만 반려당 한 뒤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 과정에서 법적 제한에 배치되거나 요건에 맞지 않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심사해야 할 대상은 기업의 현재 ‘사업계획’이 당초의 계획과 부합하는지가 아니라 기업의 ‘시설’이 당초의 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라며 “발전소 시설 자체로는 사업계획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고를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

상 필요성이 있다는 나주시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나주시는 재판 과정에서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피해를 들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으로 판단, 신고를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관련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했고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정기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점,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환경영향조사에서도 환경상 피해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12월 준공해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연료 반입 문제와 LNG 보일러관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나주 지역민의 민원 등이 제기되면서 여태껏 멈춰선 상태다. /김지수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69기 수습기자 모집

올해로 창사 69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열정과 패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발굴, 보도하면서 독자와 지역민의 대변자를 자임해왔습니다. 신문과 인터넷·모바일이 어우러진 융합미디어를 지향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호남언론 종가에서 100년 신문의 역사를 열어가길 창·제작의 사고와 정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모집부문	전형절차	자격
수습기자 0명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전형일정		
전형방법	일정 및 장소	
지원서접수	4월 19(월)~28일(수)	방문 및 우편접수
서류전형 발표	4월 30일(금)	개별통보
면접	5월 4일(화)	본사 10층
최종합격자 발표	5월 7일(금)	지면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	양식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	A4 1장 이내
외국어 성적증명서	TOEIC 또는 TOEFL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최종학교 전학한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성적증명서 포함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접수처: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국

光州日報社

담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서울 유세현장 다녀온

민주당 관계자 코로나 집단감염

담양에서 이틀새 코로나 19 확진자가 7명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사무소 관계자, 당원 및 가족들로 방역당국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최근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유세 현장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최초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이계호 국회의원 담양지역 사무소 여직원(전남 994번)과 홍보실장(988번), 의원 수행비서(989번), 당원(990번), 당원 부부(991번·992번) 등 6명이 확진됐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전남 994번의 남편이 확진돼 전남 982번으로 분류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일부가 최근 다녀온 서울시장 유세현장을 다녀온 뒤 증세가 시작된 점에 미뤄 서울 방문 과정에서 최초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 구 당원 33명은 지난 6일 4·7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서울을 다녀오고 나서 지난 7일 민주당 사무소와 관사, 식당 등에서 모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식당 모임에 7명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행비서(989번)와 접촉한 민주당 이계호 의원도 이날 오후 서울에서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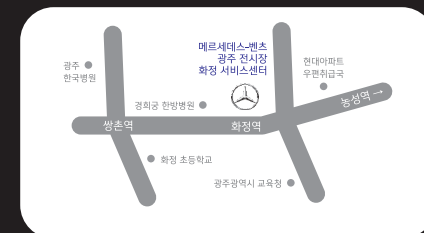
전남도와 담양군은 민주당 당원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이동과 접촉면이 넓어 추가 감염 위험이 크다고 보고, 이날 오후 6시부터 담양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명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Mercedes-AMG GLC & GLC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Mercedes-AMG를 직접 경험 하세요!



신성자동차
Mercedes-AMG GLC 43 4MATIC (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1,955kg, 지동9단, 복합연비 8.3km/ℓ, 도심연비 7.5km/ℓ, 고속도연비 9.6km/ℓ, 5단급, 복합CO₂ 배출량 212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기 저항계수는 국제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